

薯童說話 研究

현 승 환*

목 차

- | | |
|-----------|--------------|
| 1. 문제의 제기 | 2) 혼인설화 |
| 2. 서동의 정체 | 3) 민요로서의 서동요 |
| 3. 설화의 분석 | 4) 미륵사 연기설화 |
| 1) 영웅탄생설화 | 4. 결 언 |

1. 문제의 제기

현존하는 향가로는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로 총 25수가 전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민요형식에 가깝다고 하는 4구체 향가로는 서동요, 풍요, 현화가, 도술가가 있다. 여기서 서동요는 향가를 연구하는 학자의 연구성과¹⁾를 바탕으로 설화연구, 불교문학적 연구 등 다각적인 면에서 성과가 이루어졌다.²⁾

* 강사, 대학원 박사과정

- 1) 梁柱東, 朝鮮古歌研究(博文出版社, 1942)
- 2) ① 사실로 해석 - 무왕설 : 신채호, 小倉進平, 양주동, 조운재, 김사엽, 김동욱, 정주동, 이능우, 구자균, 조지훈, 김기동, 정병욱, 김준영, 황수영(『백제의 건축

그 결과 서동은 역사상 실존인물이나 설화상의 가공인물이나로 크게 나뉘어 논의되어 왔다. 이런 논의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일연이 무왕조 제목을 달 때 다음과 같은 주를 담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처 음) 무왕……고본에 무강이라 했다. 그러나 아니다. 백제에 무강이 없기 때문이다. (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

(마지막) 삼국사기에 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 하고 홀어머니의 아들이라 했으나 알 수 없다. (三國史云 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

이 두 부분이 논의의 발단이 된 것인데, 특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독녀지자의 기록을 뺀 法王之子の 기록이 보이고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이 두 기록을 모두 남기면서 <未詳>이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관의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하던 김부식의 입장에서는 法王之子는 수궁이 가지만 독녀지자는 부자상속을 위주로 하던 백제의 세습제 사회에서 법통상 믿을 수 없기에 삼국사기에서는 삭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반면에 일연은 체제를 갖춘 역사서에서는 빠뜨려 버려지기 쉬운 자기 나라의 옛이야기들, 신이한 사실 속에 묻혀져 온 그 설화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애써 전달하고 싶었기에 그 신이한 것들을 원형 그대로 제시하여 그 속에 내포되고 상징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결과 구전되는 내용까지도 친절하게 주를 달아 이해시키려 한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무왕은 법통상 법왕의 아들이요 모계로는 홀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며, 어머니편은 평민측이고 아버지편은 왕자며, 서동은 이 두 가지 부모신분을 다 경험한 셈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설화를

미술' 「백제연구」, 제2집), 최래옥 등

동성왕설 : 이병도(『서동설화에 대한 신고찰』 「역사학보」 제1집, 1953)

무녕왕설 : 사재동(『서동설화』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념논총」, 1971)

원효설 : 김선기, (『쇼똥노래』 「향가의 새로운 풀이」, <현대문학> 151호)

② 寺刹緣起譚으로 해석 - 미륵사창건전설 : 송재주, 『서동요의 형성연대에 대하여』 (王興寺創寺記 : 지현영선생 「장암화갑기념논총」, 1971)

③ 설화로 해석 - 불교적인 설화 :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선명문화사, 1974)
서민들의 꿈을 모두 성취시켜 주는 요원한 이야기 : 사재동, 앞의 책
Hero-story :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연구』, 서강대출판부, 1972)

통해 일연이 나타내고자 한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⁵⁾

이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서동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규정짓고, 주인공 서동이 왜 설화화되며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를 산퍼봄으로써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서동설화 속의 미륵사 연기설화에서 암시되는 미륵사상을 추찰해 보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필자는 서동요의 주인공 서동이 무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서를 통해 확인하고 지금까지 설화상의 이야기로 여겨지던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러브스토리가 허구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필연적인 결과며 서동요 역시 단순한 어린이를 위한 동요가 아니라 민중의 뜻이 담겨진 민요⁶⁾로 보고자 한다. 먼저 서동의 정체를 규명해 보자.

2. 서동의 정체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서동은 무왕이라 밝혔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무왕에 관한 기록을 보면

《무왕의 이름은 강으로 법왕의 아들인데 위풍이 뛰어나고 지기가 호걸하였다. 법왕이 즉위하였다가 그 다음 해에 돌아가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³⁾

《법왕의 이름은 선 - 혹은 효순이라고도 함. - 으로 혜왕의 장자인데 혜왕이 돌아가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隋書에 법왕 선을 창왕의 아들이라 하였다.)》⁴⁾

《혜왕의 이름은 계로 명왕(성왕)의 제2자인데 창왕(위덕왕)이 돌아가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⁵⁾

3) 김태영, '일연의 생애와 사상',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

4)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1』에서 서동요는 민요인데 특정인물을 설정하여 마치 역사적 사건인 듯이 이야기를 꾸민 것이라 하였다.

5) 삼국사기, 권 제27, 백제본기 제5, 무왕

武王 諱璋 法王之子 風儀英偉 志氣豪傑 法王卽位 翌年薨 子嗣位

6) 삼국사기, 앞의 책, 法王 諱宣 (或云孝順) 惠王之長子 惠王薨 子宣嗣位 (隋書 以宣爲昌王之子)

7) 삼국사기, 앞의 책, 法王 諱季 明王 第二子 昌王薨 卽位

〈위덕왕의 이름은 창으로 성왕의 원자인데 성왕이 재위 32년에 돌아가시자 왕위를 계승하여 즉위하였다.〉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의 이들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여 정리하고 재위연대를 참고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왕 31 — { 혜왕 1(성왕의 2자) — 법왕 1(혜왕의 장자) — 무왕 41(법왕지자)
위덕왕 44(창왕이라고도 함. 성왕의 원자)

곧 성왕 — 위덕왕 — 혜왕 — 법왕 — 무왕의 순으로 왕통을 이은 것이다. 위표에서 보면 서동으로 인식되는 무왕은 법왕을 아버지로, 혜왕을 할아버지로, 성왕을 증조부로 모시는 가계의 일원이다. 아버지인 법왕이 재위 1년 만에 단명했기에 큰 할아버지인 위덕왕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낸 셈이 된다. 그런데 隋書의 기록으로 눈을 돌리면 가계가 달라진다. 곧 <隋書에 법왕 선을 창왕의 아들이라 하였다.>라 하였기에 그럴 경우 법왕은 창왕(위덕왕)의 아들이 되어 다음과 같은 가계가 이루어진다.

성왕 31 — { 혜왕 1(성왕의 2자)
위덕왕 44(창왕이라고도 함. 성왕의 원자) — 법왕 1(위덕왕의 아들)
— 무왕 41(법왕지자)

곧 성왕 — 위덕왕 — 혜왕 — 법왕 — 무왕의 세습왕권이 이룩된다. 위덕왕이 아들인 법왕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동생인 혜왕에게 승계한 셈이 되는 것이다.

법왕이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혜왕의 장자인가 아니면 隋書의 기록대로 창왕(위덕왕)의 아들이자라는 것은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무왕은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대로의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인물이 되며, 주인공 서동은 서동설화에 나타나는 대로 무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왕인 동성왕이든 무녕왕이든 어느 한 인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설화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라면 서동설화는

8) 삼국사기, 앞의 책, 威德王諱昌 聖王之元子也 聖王在位三十二年薨 繼位

실제 인물이 실화화되는 과정을 밝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문제는 隋書의 기록의 타당성 여부다. 隋書는 당 태종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수나라의 정사로 서기 636년에 완성되었다. 수는 무왕 18년까지 중국을 통치하다 607년에 당에게 멸망한다. 수는 무왕 18년까지 중국을 통치하다 607년 당에게 멸망한다. 수가 멸망한 뒤 30여년 후에 隋書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기에 무왕대와 隋書 완성 시기를 비교해 볼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보다 隋書의 기록이 오히려 더 신빙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대주의에 따른 당시의 외교관제를 고려할 때 隋書의 경우가 오히려 백제에 관한 객관적인 입장일 수가 있다. 隋書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백제는 왕위 계승제임에도 불구하고 위덕왕이 자신의 아들인 법왕에게 바로 왕위를 계승시키지 않고 동생인 혜왕에게 왕통을 잇게 하였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왜 위덕왕은 아들인 법왕에게 왕위를 계승시키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뭔가 사정이 있을 터이니 이를 추론해 보면 다음의 2가지일 수 있다.

- A. 법왕이 혜왕의 추종세력에 밀려 왕위계승을 못하거나
- B. 법왕이 위덕왕이 바라는 왕자가 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에서 혜왕의 추종세력이 강했다는 것은 위덕왕이 44년 동안 재위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세력이 강하여 혜왕을 추대하였다 하더라도 재위 1년만에 그가 승하하였다고 하여 자신들의 반대파를 끌어들이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혜왕에게도 후사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隋書의 기록에 昌王之子라는 기록 때문에 법왕이 창왕 곧 위덕왕의 장자인지 차자인지는 의심이 잔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법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왕에 있기에 장자인지 차자인지 위덕왕의 아들이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다.

그러면 B가 문제가 된다. 위덕왕이 바라는 왕자가 못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다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법왕이 아주 어리거나
2. 법왕이 비정상적인 생활인이었다.

위덕왕이 오랫동안 재위에 있었으니까 1의 아주 어렸다는 사실보다는 2의

비정상적인 생활인이었을 것이라는 데 관심이 간다. 왜냐하면 무왕은 할아버지인 위덕왕의 재위시에 어린시절을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데 법왕이 아주 어렸다면 자식인 무왕과의 관계가 모호해진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위덕왕 재위시의 비정상적인 생활인으로 관명된다. 그러기에 왕통을 이을 후계자이지만 위덕왕에게는 왕위를 이어받을 재목감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숙부인 혜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생활인인 법왕은 왕위를 숙부에게 양위하고 난 후는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궁중 밖의 규수와의 사이에서 서동인 무왕을 얻게 된다. 결국 무왕 곧 서동이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자 이에 따른 이야기가 영웅의 탄생으로 전이되어 신화적인 인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3. 설화의 분석

서동설화⁹⁾의 내용을 편이상 화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동이 지룡자로 탄생
- 2) 서동의 기량난축
- 3) 마로 생계 영위
- 4) 선화 애기 들고 경사로 올
- 5) 서동은 소문을 퍼뜨림
- 6) 선화의 내침
- 7) 귀양중 만남
- 8) 금 발견
- 9) 지명으로 하여금 황금 수송
- 10) 진평왕의 안부
- 11) 왕위 획득
- 12) 미륵3존의 출현
- 13)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용화산 밑의 못을 메움
- 14) 미륵사 창건

9) 삼국유사, 권 제2, 紀異 제2, 무왕조.

위 설화는 크게 3개의 설화로 구성되어 있다.

1. 서동의 탄생설화 곧 영웅탄생설화(화소 1), 2), 3))
2. 선화공주와의 혼인설화(화소 4), 5), 6), 7), 8), 9), 10), 11))
3. 미륵사 연기설화(화소 12), 13), 14))

그러면 이들 설화들이 어떻게 하여 무왕이라는 실존 인물에 부회되어 전승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1) 영웅탄생 설화

영웅탄생설화로서 서동설화에 수용되어 있는 설화는 아래자 설화가 있다. 南池전설¹⁰⁾로 전해지고 있는 설화를 보자.

백제의 설혼째 임금이신 무왕의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扶餘) 南池가에 집을 짓고 살았을 때의 일이었다.

밤마다 잠 자는 밤중에 불그스름한 옷을 입은 이름도 성도 말하지 않는 고운 사나이 하나가 아무 소리도 없이 어느 틈에 들어와서는 과부의 자는 잠자리 속으로 살그머니 들어와 자고는 밤이 새기 전에 나가고 하는 것이었다.

그 과부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남이 알까 두렵기도 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자기의 몸이 이상하여지고 또 배가 점점 불러오므로 이 일을 끝내 숨길 수가 없어서 하루는 친정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아뢰었더니, 그 아버지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하고 말하기를 “그러면 그 사나이가 오늘 밤에도 또 올 것이니 실패에다 많은 실을 감고 또 바늘을 꿰어 두었다가 그 사나이가 돌아갈 때 쭈 해서 옷자락에 찢려 두어라”하고 가르쳐 주므로 그 과부는 그 날 밤 친정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옷자락에다 살그머니 바늘을 찢렀더니, 그 사나이는 대경실색을 하고는 황급히 달아나 버리었다.

그 이튿날 새벽 일찌기 그 실의 간 데를 찾으니, 그것이 남지 못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 과부는 더욱 이상하여 그 실을 살금살금 잡아 당기니 큰 의복 하나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허리쪽에 바늘이 찢리어 있었다.

그 뒤 과부는 달이 차서 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점점 자라매 비밀하여 도량을

10) 최상수, '南池'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p. 120~123.

헤아리기 어려웠고 항상 마(鬻鬻)를 캐어 팔아서 살았으므로 인하여 나랏 사람이 그를 맛둥(鬻董)이라 하였다고 한다.

동계의 설화로는 견훤의 탄생 전설이 있다.

또한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한 부자가 광주 북쪽 마을에 살았다. 그의 딸은 자태와 용모가 단정하였다.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매일 붉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너는 긴 실꾸리를 준비하여 그 남자의 옷에 꿰어 두어라 하니 그대로 하여 다음날 실꾸리를 찾으니 북쪽 단하에 바늘이 큰 지렁이의 허리에 쫓린 채 있었다. 후에 이로 인하여 임신하고 한 남자를 낳았다.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하고 경북 원년 임자년에 왕이라 칭하고 완산군에 도읍을 정했는데 43년을 다스렸다고 한다.¹¹⁾

異物交婚譚의 일종인 蛇福誕生傳說도 동계설화로 보인다.

京師萬善北里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없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나이 12세가 되어도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지렁이 아이라 불렀다.¹²⁾

이 이야기들은 야래자설화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서동설화의 내용은 獨女之子라는 구절만 있어 야래자 설화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나 남지전설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야래자에 의해 탄생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 야래자에 의해서 출생한 아이가 費童子이고 남다른 능력이 있었으며 國王이나 國祖, 또는 姓氏의始祖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신성한 인물의 출생담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神이라는 증거가 된다.¹³⁾

야래자 설화에서 주인공의 탄생은 기이하고 그들은 모두 비범한 남자. 기이한 남아 즉, 기량이 난축한 인물로서 장차의 출중한 인물을 약속받고 있다. 결국 서동의 경우는 장래를 영웅화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셈이다.

11) 삼국유사, 권 제2, 후백제 견훤.

12) 삼국유사, 권 제4, 蛇福不言, 京師萬善北里 有寡女 不夫而孕 既產 年至 十二歲 不語亦不起 因號蛇童

13) 서대석,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제1집,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무왕은 법왕지자였다. 그러한 실제인물이 설화상에는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사대주의적 사관에 따라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儒臣인 김부식은 왕명에 따라 당시까지의 전존사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관의 위치에서, 삼국 및 통일 신라의 역사를 편찬했다. 그러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수용하고 논의하여야 옳으나 앞서 전제했던 바와 같이 혜왕의 장자가 법왕이고 법왕의 아들이 무왕이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받아들일 경우 설화의 논의 자체가 미궁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隋書의 기록을 수용하여 논의해 보자.

법왕은 위덕왕의 후계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친의 뜻에 어그러지는 일만 행하며 비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였을 것이다. 그의 상대가 후궁이든 여염집 처녀이든 문제가 안된다. 그러는 도중에 무왕을 얻었을 것이다. 44년 동안 재위하며 강력한 왕정을 행사하던 위덕왕은 강력한 왕위 세습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못 미더워 동생인 혜왕에게 왕위를 넘겨준다. 혜왕이 1년 밖에 지내지 못하자 법왕에게 왕위가 이어진다. 이럴 즈음 무왕은 부친을 만나지 못한 채 모친만을 모시며 삶을 영위해 갔으며 주위에서는 범상한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는 마를 캐는 마룡이 된다.

이런 추론을 가정하면 삼국유사 기록인 〈어머니가 홀로 되어 집을 남쪽 못가에 짓고 있더니 못에 있는 용과 통하여 낳았다〉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용(池龍)은 아직 용이 되지 못한 물 속에 잠긴 용, 곧 潛龍이니 이는 왕자거나 왕세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다. 거기다가 백제에 널리 퍼져 있는 야래자 설화도 이와 동격이다. 그럴 경우 지룡 곧 법왕은 獨女와 교통하여 무왕을 낳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이는 무왕을 영웅화시키기 위한 곧, 건국신화의 주인공들과 더불어 인식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서동의 탄생은 영웅탄생설화인 야래자 설화를 수용하여 전승된 것이다.

2) 혼인 설화

서동의 탄생과 관련되는 설화는 남지 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야래자 설화의 부회로 이루어졌다. 기이한 탄생을 한 서동은 성장하자 몰래 경주로 가서 여러 아이들을 모아 마을 나누어 주면서 서동요를 부르도록 한다. 그로 인해 서동은 선화공주와 혼인을 하게 된다. 필자는 이 부분을 혼인설화의 삽입으로

보고, 설화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동요가 실제인물 무왕에 부회 되는 과정을 혼인설화에서의 기능과 성격을 살펴 봄으로써 考究해 보려 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무왕은 법왕지자라 했다. 어떤 성격의 아들인지도 밝히지 않고 법왕의 아들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왕위 세습사회에서 적자인지 서자인지도 모르는 무왕 서동이 왕위에 오르자 신라로서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백제 위덕왕이 재위시에는 신라와 2번 밖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그 후 20여년 동안 신라와 백제는 편안하게 지냈다. 그런데 무왕은 등극 후 3년 쯤부터 신라의 아막산성을 공격하며 서서히 발돋움을 한다. 이 당시만 해도 진평왕이 건재해 있었기에 신라는 큰 손실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백제는 강성해지고 신라는 쇠퇴해진다. 신라인들로서는 백제의 침공에 아주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무왕, 곧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결혼이라는 설화의 내용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구나 이 결혼과정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서동요는 어떤 성격을 갖는가.

삼국사기에서 무왕이 등극 후 백제와 신라가 서로 싸운 사건만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백	제	신	라
무왕 3	신라의 阿冥山城을 침.	진평왕 24	불리
무왕 6		진평왕 27	백제의 東鄙를 침
무왕 17	신라의 母山城을 침.	진평왕 38	
무왕 19		진평왕 40	백제를 쳐서 가금성 회복함.
무왕 25	신라를 쳐서 速舍 등 6城을 취함	진평왕 46	
무왕 28	신라 西鄙의 2城을 攻取함.	진평왕 49	
무왕 29	신라의 가금성을 침.	진평왕 50	
무왕 33	신라를 침.	선덕여왕 1	
무왕 34	신라의 西谷城을 침.	선덕여왕 2	
무왕 37	신라의 獨山城을 침.	선덕여왕 5	

위 표에서 보듯이 무왕은 재위 41년 사이에 8번의 전쟁을 벌이고 신라는 그동안 2번의 반발을 보였었을 뿐 계속 당하기만 하였다.

신라에서는 진평왕이 왕위에 오른 후부터 13년간은 백제와 분쟁이 없었다. 그런데 백제 무왕이 등극하고 난 후부터 신라는 곤욕을 치르게 된다. 도포상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무왕의 재위 시절은 신라로서는 괴로운 나날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은 백제와 신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무왕)28년(627) 7월에 왕은 장군 沙乞에게 명하여 신라 서변의 2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300여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왕은 신라가 침략한 땅을 회복하고자 하여 크게 군사를 일으켜 웅진으로 나가 주둔하니 신라 진평왕은 이 말을 듣고 급히 사신을 당으로 파견하여 이를 알리고 구원을 청하자 왕은 이말을 듣고 공벌을 그만 두었다. 8월에 왕은 姪福信을 당으로 파견하여 조공하니 당태종은 백제가 신라와 원수가 되어 번번히 침범한다 말하고 왕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왕은 세대로 군장이 되어…… 신라왕 김진평은 짐의 藩厓이고 왕의 隣國이라. 그런데 늘 듣건대 군사를 파견하여 이를 정벌함으로써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하니 싸움을 그만두고 참아야 할 것을 남달리 소망하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前怨을 잊고 짐의 본 뜻을 알고 함께 隣情을 敦篤히 하며 곧 싸움을 그만 두시오>하였으므로 왕은 이에 대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사과의 뜻을 표하였는데 밖으로는 비록 이에 순응한 것 같이 말하고 안으로는 사실 서로 원수가 됨이 예와 다름 없었다.¹⁴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보이는데 진평왕의 셋째공주와 서동인 무왕과의 혼인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더구나 무왕인 서동이 혼자서 머리를 깎고 신라 서울로 와 마를 나눠 주며 군동을 모아 서동요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였겠는가? 더군다나 바라는 것이 신라와 백제간의 혼인문제이기 때문이다. 신라와 백제간에 국혼이 있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동성왕조¹⁵에 보인다.

신라와 백제의 혼인관계 기록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추출해 보자.

14) 삼국사기, 권 제27, 백제본기, 제5, 무왕조.

15)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동성왕조.

十五年 春三月 王遣使新羅講婚 羅王以伊滄比智女 歸之

- 삼국사기 서기 494 백제 동성왕이 신라 소지왕의 신하 이찬 비지의 딸을 맞았다.
삼국사기 서기 553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의 공주를 소비로 맞았다.
삼국유사 서기 600 이전 백제 무왕이 태자 때 신라 진평왕의 공주를 맞았다.
삼국유사 서기 603 무왕 즉위 직후 신라와 대전하고 605년에 한번 접전이 있은 후, 611년까지 약 10년간 (무왕 12년)까지 신라와 별 전쟁이 없었다. 그 이후는 전쟁이 자주 있었다. (소강상태가 사라진 것이다.)

삼국사기 권 제4, 24대 진흥왕조에 보면 왕 14년, 서기 553년에 궁전을 고쳐 황룡사를 짓고 7월에 백제의 동북변을 공취하고 지금 경기도 광주에 新州를 설치하여 백제에 위협을 주고 나서 시월에 백제의 왕녀를 맞아 소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백제본기 성왕 31년조(서기 553)에도 있다. 이 성왕은 이듬해 바로 딸을 시집보낸 신라 진흥왕에게 잡혀 죽는다.

동성왕은 494년에 이찬 비지의 딸을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60년 전의 일이다. 실제로 사이가 좋아 정식 국혼이 이루어졌을 시는 평화가 유지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의 국혼이 서동과 진평왕의 선화공주와의 결연 설화로 형성된 것이다. 진평왕의 셋째 공주가 선화인지는 불분명하나 신라와 백제간의 국혼관계만으로 족하다. 뒤의 미륵사 연기설화에서 재론하겠지만, 공주의 이름이 선화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황수영의 견해가 흥미를 끈다.

다행히 삼국유사 권2 무왕조가 있어 미륵사에 관한 귀중한 문자를 전하여 주었다. 때는 부여기에서도 국력과 국부가 절정에 달했던 무왕대이며 그 주인공이야말로 一代 一次의 順利을 이곳에 세우고 發願하였던 왕자요, 왕비다. 그들에 얽힌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는 이 大刹의 創寺因緣을 말하기에는 참으로 알맞은 내용이고, 王妃 善花의 이름 또한 善化로서 미륵의 하생화신인 현세의 彌勒善花이다.¹⁶⁾

곧 미륵선화의 선화가 진평왕의 공주 이름으로 차용된다. 거기에서 설화 담당층의 설화 의식과 무왕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서동요와 더불어 향유, 전승되다가 일연에 의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설화 담당층들이 갖고 있던 목적의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를 서동요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16) 황수영, '백제의 건축미술' 「백제연구」 제2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1)

밝혀보자.

3) 민요로서의 서동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 무왕이 자주 신라를 침범하는 사이인데도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서동요가 불리어지고 그에 관한 설화가 전승되었을까.

설화나 노래가 꾸준히 전승되려면 전승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전승자들의 소망과 흥미가 맞들어지게 걸맞을 때 그 설화는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동설화 내에서는 설화의 내용도 매력이 있지만 그 내용을 압축시켜 인구에 회자되게 한 서동요 노래 자체에 흥미가 있다.

서동요는 서동이 군동을 모아 부르게 했다는 점에서, 곧 아이들이 부르게 했다는 점에서 童謡로 규정되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선화 공주님은 남그르기 얼어두고

맛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간다.

(양주동 풀이)

이 서동요는 향가 중에서 고행에 속하는 4구체 노래다. 군동이 부른 것으로는 기록상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동요라는 칭호까지 얻고 있다. 이 노래는 배경설화의 표면적 의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석한 결과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취처하고픈 마음으로 군동들에게 마를 나눠주고 부르도록 한 적극적인 연정가로 여겨졌다. 그러나 삼국유사 기이편의 성격상¹⁷⁾ 일연이 많은 고서와 민간전승의 내용을 검토한 후 자료를 채택했을 것인데 서동요에 담긴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애절한 사랑의 내용이 곡진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수록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린 백제 관계 기사로는 3편이 있다. 南扶餘前百濟, 武王, 後百濟 甄萱이 그것이다. 이 중 前百濟와 後百濟는 모두 國祖의 건국과

17) 김태영, 일연의 생애와 사상,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 (새문사, 1982)

일연은 紀異편을 쓸 때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유교적 합리주의에 반대하고, “장차 帝王이 일어날 때에는 符命과 圖籙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보다 다른 일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고대 제왕들의 신이한 일들을 소개한 후 그런즉 우리 三國의 시조가 모두 신이에서 탄생한 일이 무엇이 괴이하랴”고 하여, 여가 속의 신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역설하고 있다.

정을 기술한 것으로서 건국신화에 대응하는 내용들이다. 溫胙와 甄蓋은 각각 前百濟와 後百濟의 건국 시조이고 이들 이야기는 백제의 국조신화인 것이다. 그래서 무왕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 하겠다.

동성왕 시절 이후로 혼인 동맹을 맺고 난 후 신라와 백제는 평온하게 지내게 된다. 진평왕이 52년 재위 동안 별 일이 없었다면 구태여 설화 내용이 진평왕의 셋째공주라고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왕의 즉위 후부터 국내외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국민들의 소망은 점차 과거와 같은 편안한 삶, 곧 전쟁이 없는 삶을 영위해 보는 것이었으리라. 그 결과 신라인은 과거와 같이 신라와 백제간에 혼인 동맹이라도 맺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없어지고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하는 바램에서 서동요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러한 신라인의 소망과 서동 곧 무왕의 기골장대하고 기량난축한 영웅상이 어울려 혼인설화는 배태되어 전승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왜 노래로 불러졌을까? 설화로만 전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고대인은 노래에 주술성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童謠라는 말은 원래 아동의 노래이지만 후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노래의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十八史略〉에 堯帝가 거리로 나가

立我蒸民 莫匪爾極¹⁸⁾

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노래를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鏡聽과 같이 卜占의 일종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小童은 成心이 없기에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른 노래에조차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동요는 사회적 사건을 예언한 노래와 그것을 비평한 노래가 있는데 후자는 물론 전자도 기사 그 자체가 사건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 후에 창작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들은 거의 모두 사서의 述作者에 의한 창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은 사람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融即的 世界觀의 중국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18) 漢文大系, 十八史略 卷之一, 五帝, 帝堯陶唐氏條, (富山房, 東京, 1972, 소화 47)

識緯思想에 기초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 견해를 참고로 하면 서동요는 요참 사상에 근거한 참요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 대한 비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사회적 사건을 예언한 노래에 대해 논의해 보자.

지금까지는 현실을 비평한 노래를 찾기보다는 요참사상에 기초한 참요를 많이 찾고 논의해 왔다.

근래에 들어 사회적 사건을 비평한 노래로 과거의 참요를 정치요”라는 새로운 용어로 개념규정을 하고 있다. 임동권¹⁹⁾은 고대인의 동요관을 논하는 자리에서 참요가 국변이나 어떠한 사건의 선조를 보임으로써 미리 예언하고 경고한다는 데서 신비시되고 믿어져 왔다고 하여 사건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소망하는 노래, 곧 서동요를 참요로 인식하였다. 근래에 들어 김부헌은 정치사회적으로 하층구조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른 소리를 민요라 하고 그 중에서 국가의 주권자가 그의 영토와 민을 통치하는데 있어 정치성이 강한 노래를 정치민요라 규정지어 서동요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²⁰⁾ 그러면 노래 자체가 왜 薯童歌가 아니고 薯童謠일까? 歌와 謠의 의미를 살펴 보자.

漢代 燕나라 韓櫻이 전한 것으로 알려진 詩經 四家 가운데 하나인 「韓詩」에

19) 土橋 寬, '日本書記編' 「古代歌謠全注釋」, (角川書店, 東京, 1982) pp. 367~391.

融卽的 思惟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1)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人事의인 일의 豫兆를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구하려고 하고 (2) 알 수 없는 현상,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어떤 人事의 원인이거나 결과라고 생각하고 (3) 또 중대한 人事의 異變이 일어나면 그 豫兆 또는 원인을 구한다.

일본에서는 名占, 卜筮(辻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나가 통행인의 회화 속에서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豫兆를 얻는 것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지 여부와 家出人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친다.

중국에서도 거울을 품고 거리로 나가 통행인의 말에 의해 길흉을 점치는 민간 습속이 있는데(이것을 鏡聽이라 함), 漢代 이후는 별과 구름 등의 天文에 의해 미래를 점치는 識緯學이 발달했다.

20) 김부헌, 「한국민요문학론」(집문당, 1987), p. 235. 그는 정치사회적으로 하층구조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른 소리가 바로 민요라 하고 이런 정치적 기능을 갖는 민요를 정치요로 규정하였다.

21) 임동권, 「한국민요연구」, 국어국문학총서 제2집, (선명문화사, 1974)

22) 김부헌, 앞의 책, p. 235.

歌에는 반드시 曲節의 해아림이 있지만 謠는 흔들거리면서 길게 읊을 뿐이어서 어린아들도 모두 할 수 있는 까닭에 童謠란 것이 있다.²³⁾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졌기 때문에 擊壤歌가 아닌 擊壤謠인 셈이다. 徐師曾이 <文體明辯>을 편찬할 때도 古歌謠辭라는 항목에서 그것을 歌, 謠, 謳, 誦, 辭, 諺으로 나누고 이를테면 <擊壤歌>는 歌의 항목에 소속시키고 <康衢謠>는 謠의 항목에 포함시키고서 또한 「韓詩」의 말을 인용해서

章曲이 있으면 이를 歌라 일컫고, 章曲이 없으면 이를 謠라 일컫는다.²⁴⁾

詩經에도 이르기를

曲과 樂이 합해진 것을 歌라 말하고 무리지어 부르는 노래를 謠라고 말한다.²⁵⁾

라는 것으로 보아 謠는 한두 어린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많은 군동이 모여 무리지어 부르는 노래가 된다. 우리 고시가로써 현전 최고의 것에는 한역가와 서동요, 풍요 등의 4구체 향가가 있어 비교적 초기의 노래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이 일정한 曲節이 없이 唱者 나뉘대도 혹은 齊唱으로 길게 늘어 읊는 노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謠로서 민요의 계통이라 보아진다.

김무현²⁶⁾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들어 동요를 인정치 않고 있다.

1. 고대로부터 민요니 동요니 풍요니 하는 것들은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왔으며 民과 童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동요의 소유자가 아이들만이 아니다.
3. 어른들도 놀 때는 아이로 돌아간다.
4. 어른과 어린이의 구분이 모호하다.

23) 유종국, '풍요론', 「국어국문학」 103호, (국어국문학회, 1990, p. 58). 재인용.

歌必有度曲節 謠但搖曳永誦之 兒童皆能爲 故有童謠

24) 유종국, 앞의 책, p. 58. 재인용. 有章曲謂之歌 無章曲謂之謠

25) 유종국, 앞의 책, p. 59. 재인용. 曲合樂曰歌 徒歌曰謠

26) 김무현, 앞의 책, pp. 60~61.

이런 이유에서도 서동요는 동요가 아닌 민요의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취했으면 하는 소망이 투명되어 불려졌다가 훗날 그것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근거로한 참요라는 견해다.²⁷⁾ 이것은 서동설화의 내용을 실제 사건으로 인식한 결과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분의 소산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요참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 당시 민중의식이 반영되어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욕망에서 불려지게 되었고, 민심이 노래 속에 투영되어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요로 보고자 한다.

고대인의 민요관에는 정치성향의 노래가 있었다. 중국의 시경에도 국풍이라는 민요가 있는데, 이 국풍은 백성을 교화하고 위정자를 풍자하여 바람이 초목을 슬그머니 흔들듯이 사람의 마음을 은근히 움직이게 한다고 전해온다.²⁸⁾ 세종이나 세조를 비롯한 역대 문왕들이 백성들의 진실한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때 그때 불리어지는 민요를 수집하여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참작하여 치적을 베풀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列子〉 仲尼篇에

堯帝가 천하를 50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정치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지 못하여 微服으로 갈아입어 거리로 나가 아이들의 노래를 들었다.

堯治天下五十年 不知天下治歟 乃微服遊於康衢 聞童兒謠

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도 민요는 민심의 반영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러기에 신라인들은 서동요라는 민요를 부름으로써 진평왕이 아끼는 딸을 백제 무왕과 혼인을 시키면서라도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해줬으면 하는 의미로 진평왕에게 그들의 뜻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보여진다. 예언의 노래가 아닌 것이다.

4) 미륵사 연기설화

이 미륵사 연기설화가 불지 않았더라면 많은 선학들이 서동설화에 대한 논

27) 임동권, '고대인의 동요관', 앞의 책, pp. 130~143.

28) 김두현, 앞의 책, pp. 235~236.

의를 쉽게 끝맺어 왔을 것이다. 사족이랄 수 있을 만큼 이 삽화가 끼여 들므로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 원인이 되어 왔다.

본고의 논의에서는 서동은 실제인물 무왕이며 그에 따른 설화는 무왕을 신성시하고 영웅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더구나 삽입가요인 서동요는 신라인의 민중의식이 담긴 민요임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서동설화에 왜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가 접맥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일연 자신의 의도로 삽입시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로 전승되던 설화가 있었는데 일연이 불승의 입장에서 이를 선택, 기술했는지의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선학들의 논의를 보면 미륵사 창건에 즈음하여 지명법사의 “顏山壙池”하는 이야기를 들어 일연 자신의 포교를 위한 한 수단으로 첨부된 설화²⁹⁾로 보고 있다. 일연 자신의 어떤 의도로 새로운 설화를 창작 기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의 해석도 무왕의 탄생, 혼인설화와 별개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통치자가 왜 미륵사를 창건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측면에서 고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제 불교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 중 법왕 당시의 백제 관계 기사를 살펴 보면 <法王禁殺條>³⁰⁾ 라는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자.

1. 법왕은 숲을 내려 살생을 금하게 하다.
2. 이듬해 30인의 뽕을 득도시키고 사비성에 왕흥사를 세우려 뜻을 세워 그 터를 닦다가 돌아감에 그 아들인 무왕이 그 사업을 계승하여 완성하다. 그런데 이 왕흥사는 일명 미륵사라고 한다.
3. 십記는 조금 다르게 적고 있는데 무왕은 그의 가난한 어머니가 지룡과 교혼하여 낳은 이요 少名은 彌彌인데 즉위하여 號를 무왕이라 하였고 처음에 왕비와 함께 이 절을 창건한 것이라 한다.

이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항은 세속오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불교

29) 김종우, '서동요 연구',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 (새문사, 1982.)

30) 삼국유사, 권3. 法王禁殺條

의 계술에 관계되는 기사로 여겨진다. 2항은 왕흥사를 세우려 했으나 뜻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가므로 그 아들인 무왕이 그 사업을 계승하여 완성하였다 하므로 이는 무왕조의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3항의 무왕의 탄생 내력은 설화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수용했으며 왕비와 함께 이 절을 창건했다고 하는 내용이 선화공주라는 인물에 대치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法王禁殺條》의 계술 기사는 미륵신앙에 의한 계술이며 법왕은 이를 널리 퍼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 때 삼국유사 무왕조에서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백제불교의 전개과정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불교사상의 측면에서 국한하여 보면 법왕시대까지의 미륵상생신앙이 무왕시대에 이르면 새로운 사회직 요구에 의하여 미륵하생사상의 전개를 가져오게 하여 익산의 미륵사는 그와 백제문화의 새로운 전개에 따른 한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미륵신앙은 어떤 성격의 신앙인가. 홍윤식의 견해를 살펴보자.

미륵은 석가의 현존불인데 반하여 當來佛(미래불)이란 것이다. 즉 미륵은 과거불, 현재불에 대한 미래불로 신앙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륵은 장차 성불을 위하여 현재에서 도솔천에서 수행 중에 있고, 한편 도솔천상의 天衆들에게 설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석가의 세계가 다한 후 56억 7천만년 뒤에 미륵은 우리들이 사는 인간 세계에 하생하여 성불하고 龍華樹 아래에서 3회에 걸쳐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龍華三會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행히도 末法世에 태어나 석가의 설법을 듣고 교화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당래불인 미륵을 믿고 수행하고 善根을 쌓아 용화삼회의 설법에 참가하고 (이를 三會值遇라 한다.) 구제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륵삼회의 설법은 너무나 먼 미래에 있으므로 우리들의 생존 중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되어 인간의 사후 도솔천에 상승하였다가 그곳에서 수행 중에 있는 미륵과 같이 56억여 년을 지낸 이후 미륵이 하생할 때에 미륵을 따라 지상에 다시 돌아와 미륵이 행하는 삼회의 설법 중에서도 初會의 설법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다.³¹⁾

31) 홍윤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5.) p. 202.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미륵하생신앙은 귀족적 성격이 아닌 대중화된 서민들의 신앙이라 하겠다. 서동은 바로 미륵하생신앙의 이러한 성격을 교묘하게 이용한 셈이 된다.

그러면 서동설화를 다시 살펴보고 미륵하생신앙 사상이 서동설화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설화자체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해 보자. 설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1. 무왕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관한 이야기
2. 서동이 신라에 들어가 선화공주를 피어 백제까지 돌아와 민심을 얻어 즉위한다는 이야기
3. 즉위한 이후 왕비와 더불어 사자사를 찾아 가다가 지중에서 미륵삼존불 출현의 인연을 만나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다는 이야기

1항의 출생과정을 보면 서동모는 지룡과의 교통으로 서동을 낳았다. 이것은 아래자 설화로 일반화되어 있으나 지룡 곧 용신앙에 기초한 영웅탄생설화이다. 井上秀雄³²⁾의 견해를 보자.

1. 고대 한국사회에서는 일찌기 신라 백제 등에서 용신앙이 성행하였다. 초창기의 용신앙은 한국 고유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水神의 神으로서 왕권의 존엄성을 높이는 입장이 되기도 하였다.
2. 미륵하생신앙에서는 용화세계를 설하고 지룡에 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여기 翹頸末이라고 하는 큰 城이 있다. 굉장히 아름답고 福德의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다. 城의 가까이에는 못이 있고 그 못(池)에는 龍王이 살고 있어 밤마다 微雨를 내리게 하여 길바닥에는 먼지가 나지 않는다. 地面은 砂金으로 되어 있으며 이 나라는 轉輪王이란 왕이 다스리고 있다. 城中의 妙梵과 梵摩波提라고 하는 婆羅門 家門의 夫婦에게 彌勒은 생을 託하여 태어나다. 성장한 미륵은 세상이 五欲에 가득 차 병을 앓고 있음을 느끼고 出家하여 道를 닦게 된다. 龍華菩提樹에 앉다. 그대에 諸天龍神은 華香과 비를 내리게 하다. 三千大千世界는 모두 震動하다.〉

32) 井上秀雄, '王者と宗教' 「古代朝鮮史序說」, (寧樂社, 1978.) pp. 189~282.
홍운식, 앞의 책, pp. 185~186 재인용.

이상 미륵하생경에 있어 시경말성의 지룡의 존재와, 지면이 모두 사금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무왕의 탄생설화, 혹은 오금산설화 등과 같은 모티브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시경말성은 장차 미륵이 하생할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무왕설화의 익산지역은 미륵하생의 장소로 신앙한 데서 파생한 결과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설화의 모티브를 미륵하생신앙에서 찾을 때 무왕과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

다음에 관심을 가질 곳은 3항이다.

삼국유사의 기록과는 달리 서동에 관한 내용이 익산지방에는 다양하게 전해진다.³³⁾

동국여지승람의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五金寺는 報德城 남쪽에 있다. 世傳에 서동이 어머니를 효로써 섬겼다. 마를 파던 곳에서 홀연히 五金을 얻었는데 후에 왕이 되어 그곳에 절을 지었다.」³⁴⁾

이러한 전설이 삼국유사의 내용과 공통점을 지니는 것은

1. 서동이 어릴 때 마를 캐어 먹고 살았다.
2. 많은 금을 얻었다. 그리고 이 금의 발견과 더불어 민심을 얻어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 創寺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전설은 이 익산 지방에서만 전해지고 있어 서동이 성장한 지역과 금을 얻은 지역은 익산지방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곧 익산은 서동에게 금을 제공하여 절을 짓게 한 것이다. 그만큼 익산은 서동에게 있어 중요한 지역이며 익산에 미륵사를 지음으로써 절대적 왕권체제를 이룩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동의 기이한 탄생은 백제지방에서 전해지고 있는 아래자 설화의 수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결국 지룡 곧 용신화의 수용으로 결론지어진다.

33) 김종우는 '서동요연구' 앞의 책에서 동국여지승람에서 나타나는 서동설화와 유사한 내용의 것을 제시하고 있다.

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 33, 全羅道 益山郡條
在報德城南 世傳 嚳童 事母至孝 掘嚳童之地 忽得五金 後爲王創寺 其地因名焉

이로써 추측되어지는 것은 익산 지역에 용신앙(水神)이 있어 왔는데 이 용신앙을 바탕으로 무왕이 마한의 중심지인 익산지역으로 진출하려 할 때 미륵하생신앙을 익산지역에 유포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무왕의 마한 중심지로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무왕의 어머니가 지룡과 통교하여 무왕을 낳았고 그 지룡이 살던 곳이 익산지방이라고 한다면 이같은 무왕 출생설화의 구조적 의미는 무왕이 익산지역의 용신앙에 의한 지배세력을 병합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의 용신앙이란 수신일 수 있고 용신앙의 지배세력을 병합하였다 함은 농경사회에 있어 수신을 지배할 수 있는 군왕의 권위를 확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다음은 선화공주의 제안에 의한 금발견이다.

마를 파던 곳이 황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미륵하생지역으로 이해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동이 금을 이해한 이후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고 함은 미륵신앙에 의하여 민심을 수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륵삼존불이 출현한 인연을 만나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미륵하생신앙에 의거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륵삼존의 출현이라는 것은 미륵하생신앙에서 말하는 미륵의 용화수하에서의 삼회설법을 상징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제가 마한의 중심지였던 익산지역으로 진출하려 하였을 때 당시에는 농경문화의 일환으로 農神(水神)에 대한 신앙기반이 있었던 바, 무왕은 그 신앙기반을 병합함에 의하여 익산지역 진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신앙의 터전을 미륵하생신앙으로 전개시켜 나감에 의하여 마한의 중심지였던 익산지역을 완전 지배하게 됨은 물론 일시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웅비의 발전을 기해 보려 했던 사실이 응축되어 수용된 설화가 서동설화라 하겠다.

4. 결 언

이상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서동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내용을 검토한

35)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設, p. 282

홍운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pp. 186~187

결과 서동으로 나타나는 무왕은 위덕왕 - 법왕 - 무왕의 가계를 이루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곧 법왕은 위덕왕이 바라는 왕자가 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었으나 재위시는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폈다. 그러한 사실은 <法王禁殺條>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드러났다. 그의 아들 무왕은 이러한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미륵사를 완성함으로써 왕권을 튼튼히 하게 되고 이러한 그의 업적은 민중들에 의해 설화화되었다.

무왕의 출생은 법왕의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출생하게 되고 이는 백제지역 곧 익산지역을 중심한 용신앙에 바탕한 아래자설화가 가미되어 영웅화된다. 그럼으로써 그는 신화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민중의 우상이 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한 과정이 대중화된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국권을 확고히 하고 신라를 침공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굳히게 되는데 이는 곧 서동요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서동요는 신라인이 백제로부터의 공세에 참을 수 없게 되면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신라인들은 동성왕 시절부터 국혼관계를 맺은 이후의 화평했던 시기를 그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중들 사이에서 진평왕에 대한 비평과 민중의 소망이 가미된 민요로 불리게 되었다.

백제에서는 서동탄생을 나타내는 아래자 설화와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가 중점적으로 향유되어 왔다. 반면에 신라에서는 신라의 민중의식이 가미된 서동요를 부르게 되고 그 이유를 무왕설화에 삼입시켜 무왕의 혼인설화로 전승하다가 후대에 일연에 의해 채록되어 건국시조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곧 서동설화는 백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던 영웅탄생을 암시하는 아래자 설화와 무왕의 미륵하생신앙을 바탕으로 한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 그리고 신라인들의 민중의식이 가미된 서동요가 서로 긴밀하게 합쳐져 실존인물 무왕을 신화적인 존재로까지 의미부여시킨 것으로 백제문화의 특성 및 민중의식이 민요를 통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설화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설화이다.

이상의 논의는 시적 상상력을 총 동원한 추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불교사상에 일천한 관계로 일관되지 못한 논의를 펴 나간 점이 있다. 다만 이 논의대로 향가와 관련된 설화들이 실제 인물의 설화화라는 과정을 밟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참요라는 대상이 무조건적으로 예언의 노래로 보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근거없이 모든 설화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고 향유되리라는 추정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향가의 근원설화가 서동설화와 같이 일관되게 진행된 설화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하나 이는 과제로 남겨둔다.